군산시, 중대재해 예방 총력

유관기관 협력 강화로 중대재해 예방 공동 대응

군산시는 오는 2024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감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우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시는 우선 민간 분야 중대재해 예방과 감축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중대재해 예방에 공동 대응한다.

국내 최고의 안전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대규모 공사현장, 시설물 등에 대한 합동점검 및 건설현장 관계자 안전교육을 추진한 것이 주요 사례다.

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북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및 '전북산단 통합안전관리 지원협의체'를 통해 합동 캠페인, 안전점검 및 교육 등 재해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지난 11월 제정 및 시행되는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으로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교육 지원,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 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 소관 도로, 교량, 터널, 하천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기·소방·건축·토목·시설물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점검단을 꾸려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적극 제거해 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민의 유해·위험요인 신고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및 조치, 조치결과 통보에 이르는 신고-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일련의 과정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군산시도 예외없이 적용 및 처벌대상으로 불특정 다수인 시민과 현업종사자에 대한 사고에 노출돼 있어 고소, 소송, 피해보상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우리 시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사고 피해자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주는 안전에 대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근로자는 기본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는 '안전 문화'의 정착을 유도하면서, 민간의 재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시가 중대재해 예방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6G시대 홀로그램 사업화 선도… 신산업 중심지로 '우뚝'

익산시,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 사업 등 국가예산 260억원 확보

R&D 성과물 활용한 제품개발 · 사업화 지원 관련 홀로그램 시장 선도

익산시가 홀로그램 사업화 지원으로 6G 시대 홀로그램 시장을 선도하며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 우뚝 떠오르고 있다.

시는 홀로그램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예산 26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가 내년에 추진하는 신규사업은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 사업(국비 100억원, 총 200억원) △익산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국비 160억원, 총 335억원)이다.

우선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 사업은 3년간 200억원을 투자해 그간 구축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개발 기술을 활용한 제품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는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홀로그램 제품개발을 지원해 5년간 국가 홀로그램 사업으로 추진한 R&D 결과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가올 6G 시대의 필수요소인 홀로그램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오는 2030년 상용화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되는 6G 이동통신에서 홀로그램은 사람, 사물, 공간 등이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만물지능인터넷(AIoE: Ambient IoE) 및 모바일 홀로그램과 같은 초실감 미디어에 핵심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시는 고해상도 홀로그램 3D 콘텐츠 기반의 모바일 통신 및 방송 서비스, 홀로그램 활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차량용 디스플레이, 스마트시티, 비파괴 검사장비, 홀로그램 현미경 등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홀로그램 사업화 지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홀로그램 기업, 기관, 장비 집적화 및 기업지원, 스타트업 육성으로 협업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년부터 5년간 335억원을 투자해 '익산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홀로그램 기반 미래산업 육성 거점을 조성하고, 주거 및 청년 문화시설 등과 연계하여 낙후된 도심 기능을 창업·벤처 중심으로 회복시키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예산 확보는 시가 홀로그램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다.

시는 지난 2019년 '홀로그램 핵심기술 개발 사업' 예타 통과 이후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개소 및 기업지원을 위한 장비를 구축해 홀로그램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였으며,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하여 홀로그램 국가 경쟁력 강화에 힘써왔다.

또한 국내 홀로그램 기업 28개사와 투자협약을 맺었으며, 이 중 20개사가 익산으로 이전하는 등 기업 집적화에 성공했다.

2022년에는 홀로그램 핵심기술개발 예타 관련 2개 실증과제 공모에 선정되어 상용차용 대화면 다기능 홀로그래픽 HUD(Head-Up Display)와 홀로그램 기반 문화재 복원 및 가시화 서비스 실증을 추진 중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그동안 시의 미래 먹거리인 홀로그램 산업 육성에 집중해온 만큼 신규사업 추진과 더불어 다양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R&D 성과물을 활용한 제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으로 국가 초격차 홀로그램 산업을 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타종행사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리며, 동·서 화합을 기원하는 의미로 이원 중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동선화, 제야의 타종식'

익산시, 경주시와 이원 중계로 진행… 대합창회 합동공연 '눈길'

2023년 연말에도 서동·선화의 도시에서 제야의 종소리가 함께 울린다.

타종행사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리며, 동·서 화합을 기원하는 의미로 이원 중계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자매도시인 익산시와 경주시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2023 제야의 종 타종식을 영호남 도시의 화합을 기리는 이색 행사와 더불어 진행한다.

익산시와 경주시가 주최하고 익산문화관광재단과 경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백제 서동왕자와 신라 선화공주가 맺어지는 서동 설화를 바탕으로 맺어진 두 도시가 새해 소망과 더불어 우호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합동 타종 행사는 동·서 화합을 위해 익산시장과 경주시장의 덕담과 익산·경주시민 합창단 합동공연 등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익산시 시립풍물단의 풍물 공연과 익산문화원 서동고취대의 행렬을 시작으로 정헌율 익산시장,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과 국회의원 등의 인사에 이어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익산시민의 소망 인터뷰 영상을 방영한다.

익산시와 경주시의 사절단 등장을 시작으로 양 도시 간의 이원 중계가 진행되며, 익산시와 경주시 간 만남의 시간으로 양 도시 시장의 덕담과 특산품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어 익산시민 합창단이 '고향역'과 '남행열차'를 선창, 이어 경주시민 합창단이 '홀로아리랑'을 부르고, 마무리로 두 합창단이 함께 '올드랭사인'을 부르며 희망찬 새해를 위한 노래가 양 도시에 가득 퍼질 예정이다.

합창 후엔 양 도시 간의 화합과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는 타종식을 진행하고, 타종이 끝나면 양 도시의 합창단이 동시에 '내 나라 내 겨레'를 합창한 뒤 새해맞이 불꽃놀이가 이어진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어린이 '100원 버스'로 이동권 확대

익산에 사는 어린이면 누구나 단돈 '100원'에 시내버스를 탈 수 있게 됐다.

익산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 6~12세 1만 5,500여 명을 대상으로 '100원 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100원 버스'는 정헌율 익산시장의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다.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만 13~18세 청소년 100원 요금제는 우선 시행하는 어린이 100원 요금제를 보완하여 단계적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어린 세대들이 대중교통을 친숙하게 이용하면서, 자차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해 도시 환경문제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재 익산시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 요금은 교통카드 이용 시 750원이다. 이를 100원으로 대폭 줄여 사실상 무상 교통을 실현한 것이다.

한편 시내버스 하차 시 주의해야할 점은 2024.1.1.부터 하차태그 의무제가 함께 시행됨에 따라 하차 시 반드시 하차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고 내려야(하차태그) 다음 승차 때 100원 요금이 적용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내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 인상

군산시는 오는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완화, 자녀 지원연령 상향,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 등 한부모가족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2024년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되며,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현재 시는 1400여 세대 한부모 가정이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내년 자격 기준 완화로 지원 가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우수기관 선정

군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역 활성화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안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광역 및 기초지치단체 지역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10년간 방치되어 왔던 군산시민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해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지난 2022년 행안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조성사업 공모에 선정, 국비를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민간위탁기관인 ㈜커넥트군산·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로컬브랜딩 활성화를 도모했다.

특히, 관에서 시도하고 추진하기 어려운 생태·문화·도서·경제 등 폭넓은 분야에서 속도감 있게 주민주도형 사회실험을 추진, 민·관협력을 통한 전국 단위 로컬 행사 추진, 지역대학 및 지역사회 중간지원조직들과 협업을 통해 로컬브랜딩 창출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군산=김판곤 기자